한 해를 보내며

이기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회장

다사다난했던 2005년이 저물고 희망찬 2006년이 다가오고 있다.

올 한 해는 국내 외로 IT 산업의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위해 한 발 전진하는 한 해였다.

올해는 이상 기후에 따른 재난 등으로 예상외의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하여 수출 전선에 빨간 불이 켜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내 IT산업은 그동안의 저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9월 수출 실적이 69.2억달러를 기록하며 월 단위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또한 기업 경기실사 지수는 9월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여 10월과 11월의 IT산업경기 BSI가 107→110으로 전망되는 등 점차 호전세가 점쳐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차세대 인터넷 기술인 와이브로나 VoIP, 위성 DMB 사업 등 새로운 기술들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어서 IT산업은 당분간 활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도 IT산업의 수출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마케팅 외교를 펼치는 한편 국내 차세대 IT 부품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협회에서도 올 한 해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은 민 · 관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더욱 다양한 사업 전개와 차세대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제도 관련 정부규제 개선방안', '수사기관의 정보요청에 따른 합리적 수사공조 개선', 'RFID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안) 개선' 등을 건의하는 한편 규제개혁기획단에 적극 참여하여 'SW자산의 효율적관리 및 운용을 위한 재고정비' 등을 제고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미래 정보통신산업의 인프라를 책

임질 광통신 및 FTTH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FTTH산업협의회'를 창립, 운영하고 있다.

회원사들에게 한 발 앞선 정보를 전달하고자 지난 3월 회원사의 한 해 전략 설계에 필수적인, 정보통신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 비젼에 대한 설명을 듣는 '정보통신 주요 정책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인 '국제정보통신 및 이동통신(EXPO COMM WIRELESS KOREA) 2005 전시회/세미나'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 기술 동향 및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 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 ASP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미래를 조망하는 'Int'l ASP/IDC Fair 2005'를 개최하는 한편,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 시점을 정확히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자리인 '2006 IT 산업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회원사들의 정보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협회는 또한 직접적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 IT 기업을 지원하는 '중소정보통신기업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올 한 해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남미, 싱가폴, 대만 등에 해외 전시회 지원은 물론 해외 개척단 파견을 통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IT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격려하는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새 천년 정보통신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멀티미디어 기술대상'과 함께 차세대 기술의 총아인 모바일 기술에 대한 관심과 발전상을 적극 반영하여 기술 발전에 기여한 업체를 수상하는 '모바일 기술 대상'도 개최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창업 붐 조성과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는 올해 7회째를 맞아 뛰어난 기술 아이디어를 채택, 우수 벤처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협회 부설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 올 초 국가공인을 획득한 '리눅스 마스터' 자격 인증을 비롯하여 인터넷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터넷 인증시험', '무선인터넷관리사' 시험을 계속적으로 시행하여 우수한 인재 선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일간 IT인재교류 활성화 및 국내 IT인력의 해외진출 기반 구축을 위한 일본 취업 IT인력 연수를 통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올 한 해는 국내 IT산업이 세계 속의 IT 기술 강국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대표 협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는 정보력과 보다 깊이있는 대 회원사 서비스로, 회원사의 이익증대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물심양면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 주었던 회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K